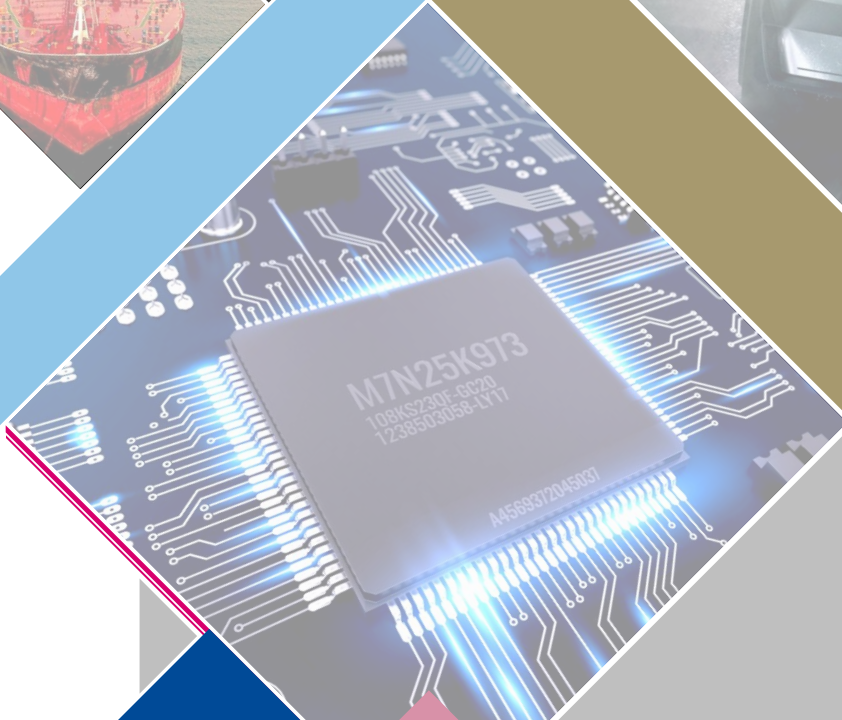




2025년

1

월호

월간

산업동향



산업 핵심지표 해설

반도체 Semiconductor

반도체는 국내 전체 수출 중 약 16%('23년 기준)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세계 시장 규모 비중은 메모리 17.2%(DRAM 9.4%, NAND 6.9%, 기타 0.9%), 비메모리 82.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년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메모리 63.1%(DRAM 71.3%, NAND 52.0%), 비메모리(순수 위탁생산 매출 제외) 2.1% 수준입니다. 한국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반도체는 주로 수요처와의 대량 판매계약에 의하여 납품되므로, 현물가보다는 고정가 거래량이 많습니다.

디스플레이 Display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내 생산된 액정 패널이 반제품 혹은 다른 제품과 통합된 완제품으로 수출되는 형태의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업체는 LCD 사업을 철수하고 OLED에 집중하고 있는바, 디스플레이와 OLED 수출액 및 OLED 가격이 주요 정보가 됩니다.

'23년 기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 물량의 77.6%, 매출액의 80.1%가 핸드폰 분야에 사용된 바, OLED 가격은 핸드폰 디스플레이용을 레퍼런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Rechargeable Battery

이차전지는 주로 전기자동차, 대용량 저장장치, 소형 IT기기 등에 사용되며, '23년 기준 한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7.1%(LG에너지솔루션 13.1%, SK온 7.3%, 삼성SDI 6.7%) 수준입니다(중국 시장 제외시 48.5%)

이차전지 수출 규모 추이와 핵심 원재료(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가격변동은 업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입니다.

자동차 Automobile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기준 전체 절반 가량이 해외 생산되고 있으며, 국내 생산중인 차량의 판매 비중은 내수 4 : 수출 6 수준입니다.

미국, 유럽, 인도는 국내 브랜드의 해외 주력 시장이며, 현지 생산 및 수출로 판매됩니다. 시장별로 취급 차종과 그 가격이 상이하므로, 자동차 산업은 특정 레퍼런스 모델의 가격보다는 판매 대수와 시장 내 점유율이 주요 지표가 됩니다.

조선 Shipbuilding

조선 산업은 글로벌 수주량에서 한국이 최근 5개년 평균 기준 약 3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선박은 수주에서 인도까지 약 2년에 걸쳐 매출로 전환되며, 건조량으로 매출액의 크기, 수주잔량으로 산업의 안정성, 신조선가격으로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철강 Steel

철강 산업의 국내 생산 물량은 내수 67 : 수출 33 비중으로 소화되고 있으며 내수의 27.5% 가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세계 철강 수요와 공급에서 모두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며, 국산 철강 수출 물량의 11.2%, 국내 수입 물량의 4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Petrochemical

석유화학 산업은 원유에서 추출된 나프타를 주 원료로 기초유분(에틸렌, 프로필렌)을 생산하고, 기초유분을 통해 플라스틱(LDPE, PP)과 합성섬유(TPA)의 원료인 유도품 등을 생산합니다. 공급량의 95%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시장의 마진율에 따라 기초유분과 유도품의 공급이 결정됩니다.

건설 Construction

건설산업은 건설수주액(건설사·발주자 간 계약금액)으로 약 3-5년간의 건설경기 동향을 전망할 수 있으며, 기상액으로 현재 시점의 건설경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건설은 건축 공종이, 해외 건설은 인프라 및 플랜트 공종이 주요 사업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레미콘과 철근이 공사원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해상운송 Shipping

해운 산업은 글로벌 운임지수가 시장의 대표 지표가 됩니다. BDI는 벌크선, CCFI는 컨테이너선, WS는 탱커선에 대한 대표적인 운임지수입니다.

부가적으로 해상운송업지수를 통해 국내 해운·항만업계의 업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 Air Travel / Cargo

항공운송 수요는 크게 여객 및 화물 수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객 수요는 관광산업의 연관산업으로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국가의 경제성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화물 수요는 글로벌 교역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월간 산업별 주요 동향(2025.1)

- ▶ 반도체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 디스플레이 OLED 수출 5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상승
- ▶ 이차전지 전기차 의무화 철회, 자동차 수출물량 선대응으로 수출 증가, 내수 감소
- ▶ 석유화학 유가 안정세로 제품 마진 개선, 건설 민간 및 공공부분의 주택 수주 증가

반도체 Semiconductor

메모리 반도체 역대 최대 월 수출액 달성, 메모리 가격 하락세 지속

수출 (12월)
145.1억US\$

전월비
+16.5%

전년비
+31.1%

디스플레이 Display

8월 이후 하락세였던 OLED 수출은 4개월만에 전월대비 상승 전환

수출 (12월)
16.9억US\$

전월비
+1.2%

전년비
△1.2%

이차전지 Rechargeable Battery

수요 감소에 따른 주요 광물 가격 안정세

수출 (12월)
8.2억US\$

전월비
+24.9%

전년비
△13.2%

자동차 Automobile

수출물량 선대응으로 수출 증가, 국내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감소

수출 (12월)
251천대

전월비
+10.1%

전년비
+1.6%

조선 Shipbuilding

고선가, 고환율 지속되는 가운데 건조량 회복

수주 (10-12월)
1,952천CGT

전분기비
+38.3%

철강 Steel

업황 부진한 가운데 전월 대비 내수 및 수출 소폭 상승

수요 (11월)
6,223kton

전월비
+1.2%

전년비
△3.6%

석유화학 Petrochemical

불황 지속 중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유가 안정세로 제품 마진 소폭 개선

수요 (10월)
1,863kton

전월비
+5.2%

전년비
+4.1%

건설 Construction

민간 및 공공부분의 주택 수주 증가

국내수주
20.5조원 (12월)

전월비
+30.2%

전년비
+62.9%

해상운송 Shipping

컨테이너선 전월 대비 운임 상승, 벌크선과 탱커선 운임 하락

BDI
1,099
전월비
△28.6%

CCFI
1,489
전월비
+4.3%

WS
413
전월비
△20.7%

항공운송 Air Travel / Cargo

12월 여객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1천만명을 상회

여객 (12월)
10,533천명

전월비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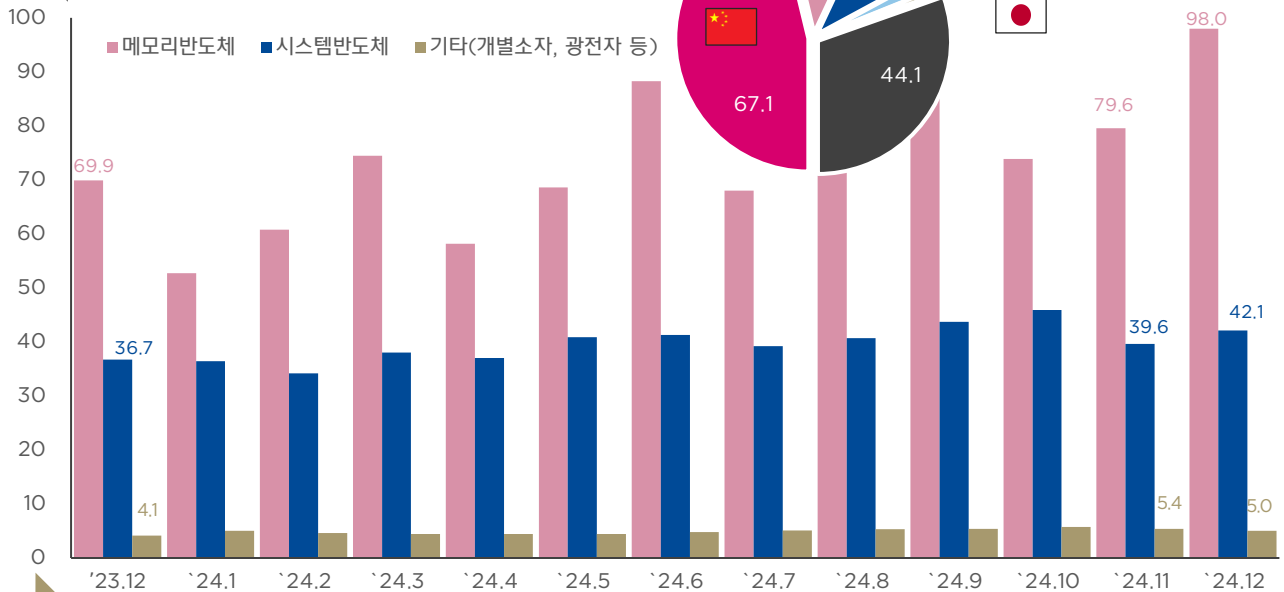
전년비
+11.9%

메모리 반도체 역대 최대 월 수출액 달성, 메모리 가격 하락세 지속

by 서지훈 전임연구원 / zihoon@kdb.co.kr

품목별 및 수출국별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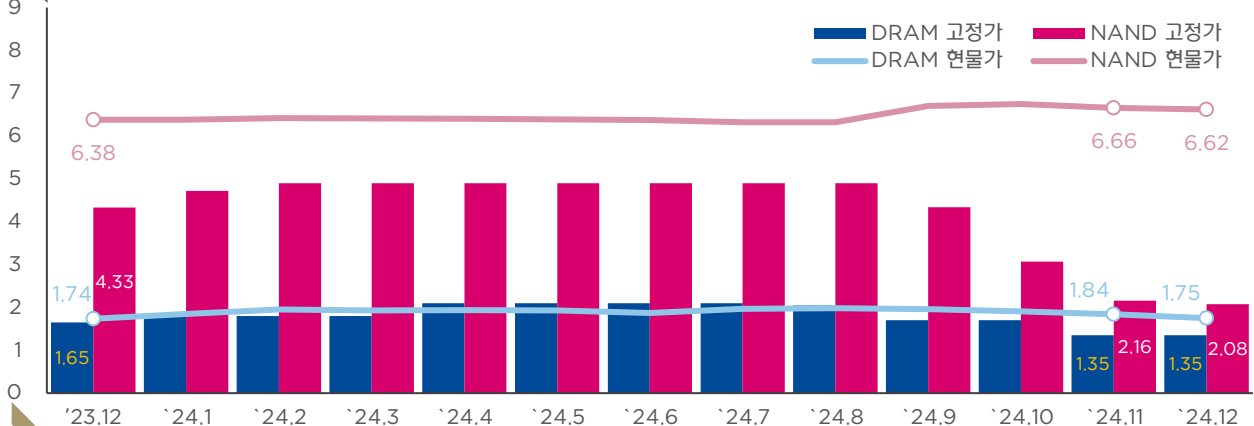
단위 : 억US\$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산업수출입동향, 월간 ICT산업동향



- ▶ '24.12월 반도체 수출은 145.1억US\$로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 하반기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AI 확대에 따른 고부가 품목 수요 증가로 연간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메모리 수출은 HBM의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하며, 역대 최대 월 수출액(98억US\$) 경신 (2위 : 95.6억US\$('23.11))
 - 시스템 반도체 수출은 SOC, DDI 등 주요제품의 판매 증가로 역대 두 번째 높은 연간 수출액 달성(478.8억US\$) (1위 : 506.7억US\$('22))
- ▶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첨단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 통제 규정 발표('25.1.15)
 - (내용) 주요 파운드리 기업(TSMC, 삼성인텔 등)이 생산한 첨단 반도체가 중국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 허가 및 실사 강화
 - (영향) 삼성 파운드리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 시장의 축소 우려

메모리 반도체 가격

단위 : US\$ / 자료 : Informax, Dramexchange / DRAM은 DDR4 8Gb 1Gx8 2,133-2,666MHz, NAND는 128Gb 16Gx8 MLC 기준



- ▶ '24.12월 DRAM 고정가는 보합, NAND 고정가는 3.7% 하락
 -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세는 올해 1분기에도 지속 될 것으로 전망
 - (DRAM) 창신메모리(CXMT) 등 중국 기업들의 저가 물량 공세에 DDR4를 비롯한 레거시 반도체 가격 하락
 - (NAND) 스마트폰, 노트북 등 세트 제품 수요 위축에 NAND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며, 국내·외 주요 기업 (삼성전자, SK Hynix, Micron 등)들은 NAND 생산량을 약 10% 감산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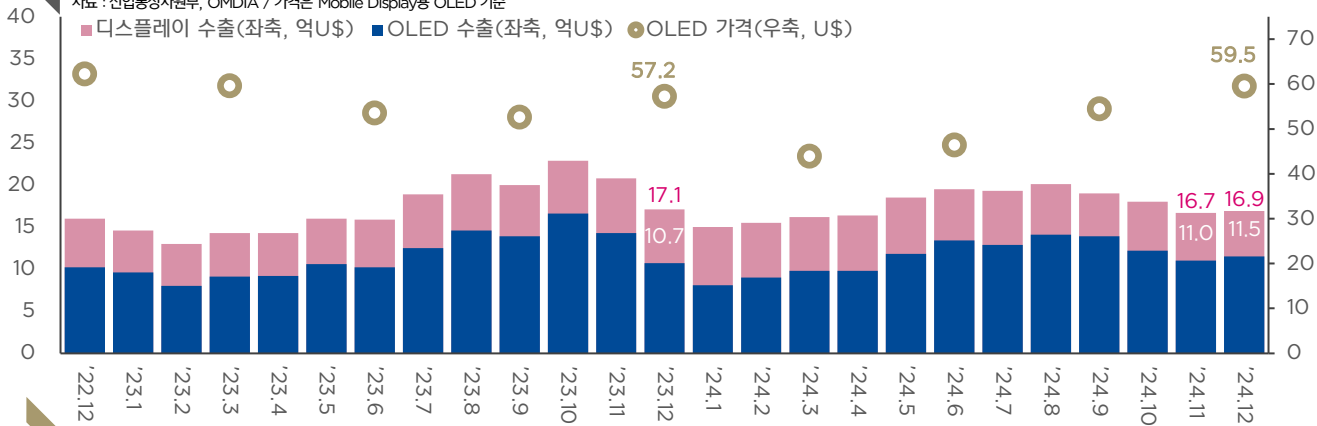
8월 이후 하락세였던 OLED 수출은 4개월만에 전월대비 상승 전환

by 김하정 선임연구원 / hrkim@kdb.co.kr

디스플레이 수출과 가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OMDIA / 가격은 Mobile Display용 OLED 기준

■ 디스플레이 수출(좌축, 억U\$) ■ OLED 수출(좌축, 억U\$) ● OLED 가격(우축, U\$)



- ▶ 핸드폰 시장 정체, 중국의 저가형 OLED 공급 확대 등으로 하락(57.2('23.4Q) → 43.9('24.1Q))했던 모바일용 OLED 패널 가격은 '24년 플래그십 핸드폰 라인업 확대 등으로 수요 회복하며 상승하는 모습

* 모바일용 OLED 패널 가격(ASP, \$) : 43.9('24.1Q) → 46.4('24.2Q) → 54.4('24.3Q) → 59.5('24.4Q(E))

- ▶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였던 OLED 수출은 가격 상승과 연말 소비에 따른 전자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 전환

* OLED 수출 증감(전년 동월 대비) : △3.4%('24.8) → -%('24.9) → △26.5%('24.10) → △23.1%('2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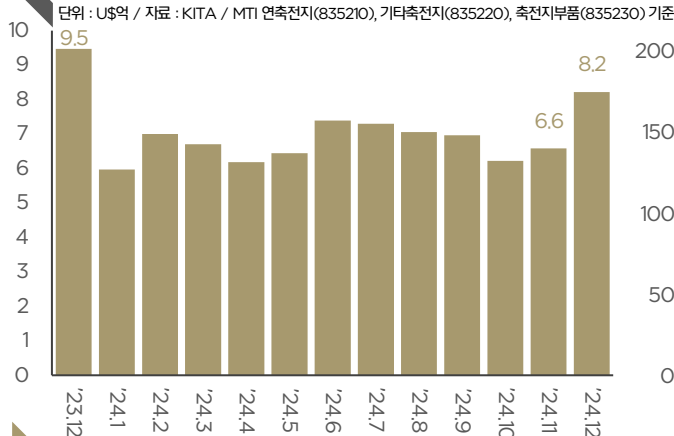
-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무선 투명 OLED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를 출시(\$59,999)하고 북미 시장에서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함('24.12.18)

수요 감소에 따른 주요 광물 가격 안정세

by 정경인 선임연구원 / gorapaduck@kdb.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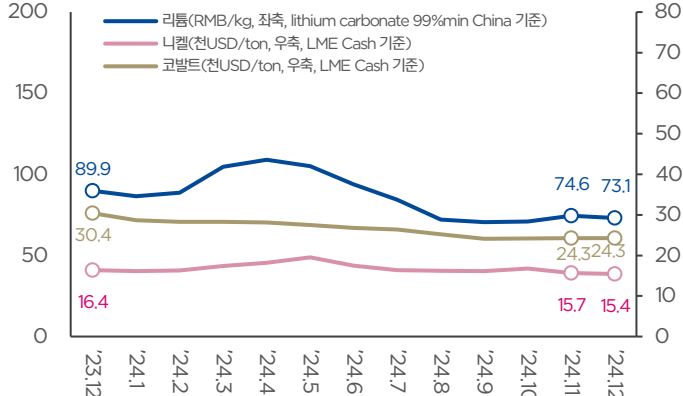
이차전지 수출

단위 : U\$억 / 자료 : KITA / MTI 연축전지(835210), 기타축전지(835220), 축전지부품(835230) 기준



주요 원재료 가격 추이

자료 : 한국자원정보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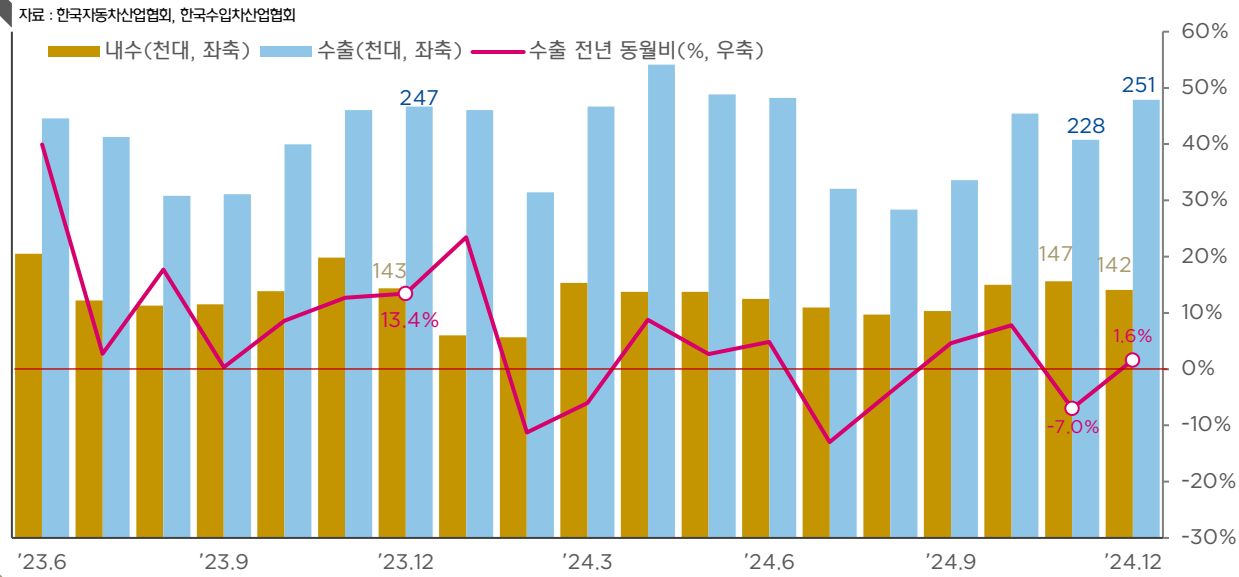


- ▶ 수출 // 연중(1~11월) 미국 및 유럽의 전기차 판매 부진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전월대비 24.9% 증가: 미국(+29.4%), 유럽(+39.8%)
- 국가별 수출 비중 : 미국(57.4%), 유럽(13.0%), 중국(5.3%), 일본(5.2%) 등

- ▶ 소재 // 주요 광물가격은 공급 과잉 및 중국 경기 부진 영향 등으로 소폭 하향세 : 리튬(△2.0%), 니켈(△1.7%), 코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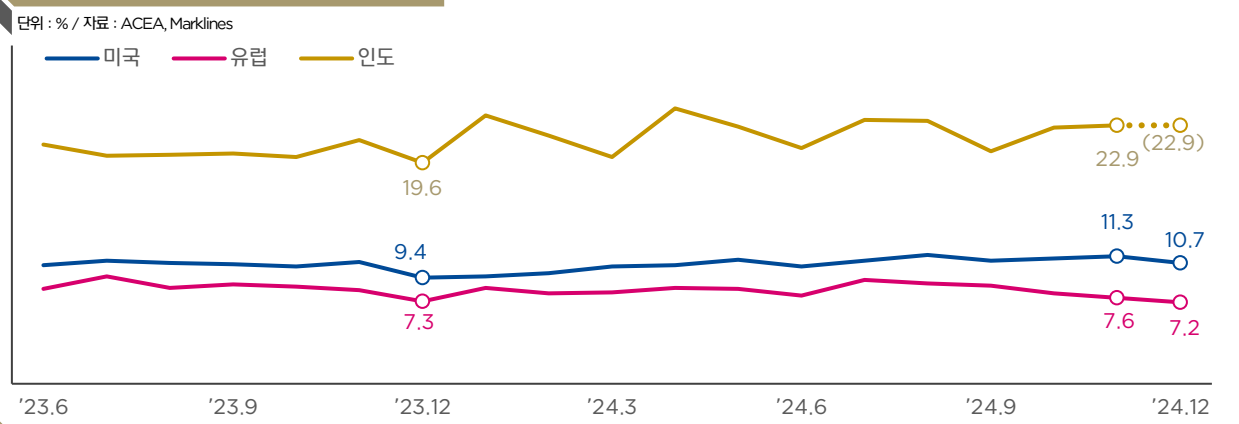
- ▶ 업계 주요 이슈 // (산업 동향) 트럼프 행정부 IRA 폐지 검토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국내 업계 부정적 영향 예상 (LG에너지솔루션) GM 합작법인 3공장 전기차 캐즘으로 건설 중단 후 GM 지분 LG엔솔 앞 매각 검토

수출 및 내수



- ▶ 수출 // 기아 K5 물량 일부 생산지 변경(미국→국내) 및 업계의 수출물량 선대응 등으로 수출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1.6%)하였으나, 판매단가가 높은 전기차 수출 감소 등으로 완성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5.3%)
 - 수출량 증감(YoY) : 현대(△4.7%), 기아(+2.7%), 한국지엠(+0.1%), KG모빌리티(+143.3%), 르노코리아(+45.2%)
- ▶ 내수 // 업계의 연말 판촉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0.6%)
 - 판매량 증감(YoY) : 현대(△14%), 기아(+17%), 한국지엠(△18.7%), KG모빌리티(△27.6%), 르노코리아(+344.0%), 수입브랜드(△16.7%)

주요 시장별 점유율



- ▶ 미국 // 시장 전체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1.1%)하였으나, 현대기아는 판매량 증가로 점유율 상승(9.4% → 10.7%)
 - 미국 판매(YoY) : 현대기아 159.9천대(+12.4%), 토요타 209.9천대(△7.5%), 혼다 135.6천대(+9.9%), 폭스바겐 65.7천대(△3.4%)
- ▶ 유럽 // 시장 전체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5.1%)하였고, 현대기아 판매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2.7%)로 점유율 하락(7.3% → 7.2%)
 - 유럽 판매(YoY) : 현대기아 79.1천대(+2.7%), 폭스바겐 286.8천대(+4.9%), 르노 130.1천대(+16.6%), BMW 83.4천대(△8.3%)
- ▶ 12월 인도 점유율 데이터는 협회 미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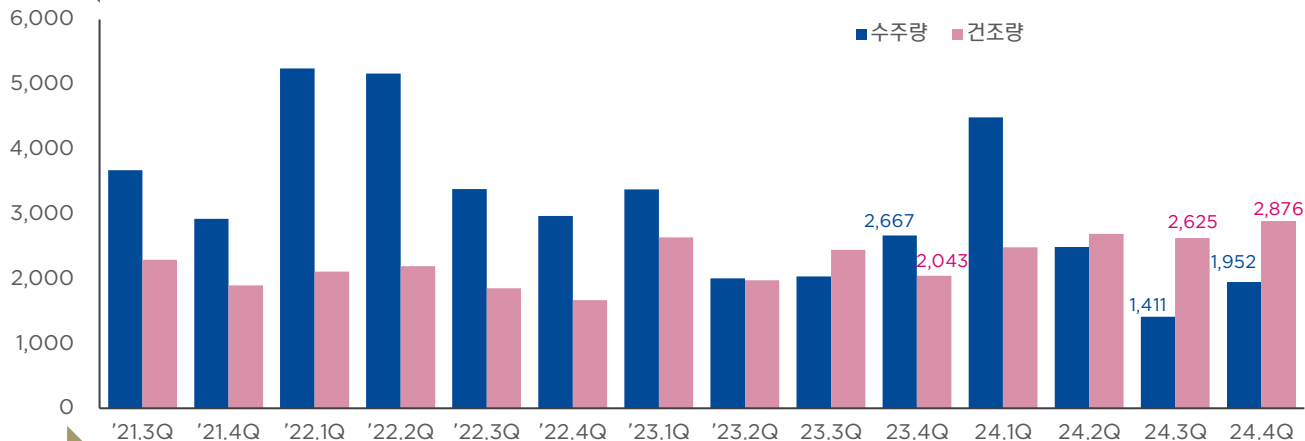


고선가, 고환율 지속되는 가운데 건조량 회복

by 박성수 전임연구원 / sungsupark@kdb.co.kr

분기별 수주량 및 건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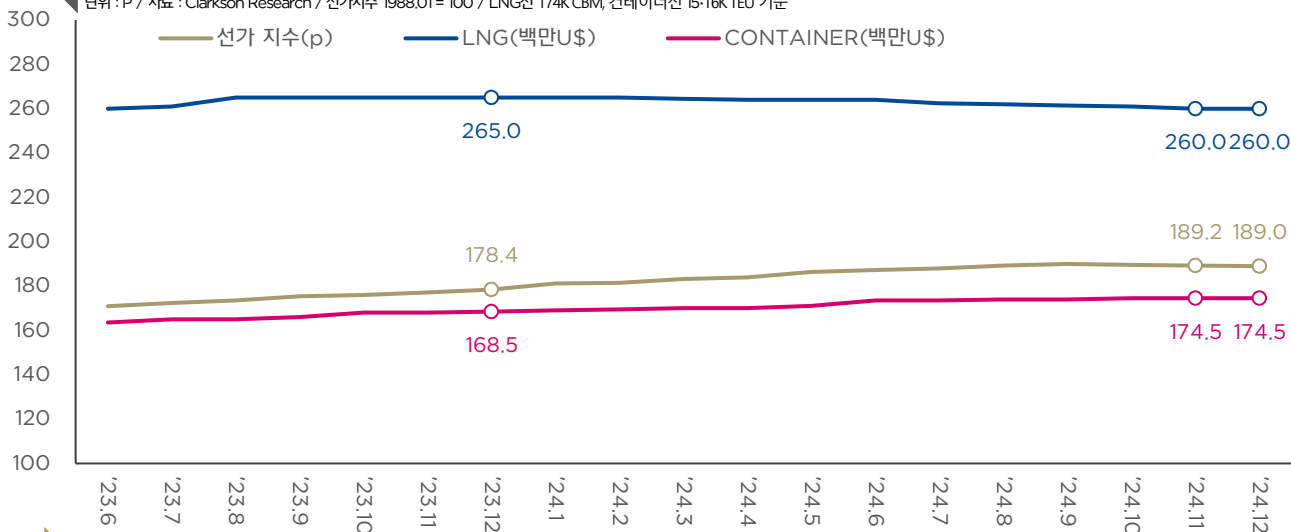
자료 : Clarkson Research / 단위 : 천CGT



- ▶ 수주 // '24.4분기 수주량은 1,952천CGT를 기록하며 전분기(1,411천CGT) 대비 38.3% 증가
 - 한국은 컨테이너선 20척, LPG선 6척, LNG선 3척, 암모니아선 2척, 탱커선 4척 등 수주
 - 중국은 화학제품운반선 38척, 컨테이너선 77척, 자동차운반선 10척, 암모니아선 2척, 벌크선 26척 등 수주
- ▶ 건조 // '24.4분기 건조량은 2,876천CGT를 기록하며, 전분기(2,625천CGT) 대비 9.5% 증가
- ▶ 수주잔량 // '24.12월 수주잔량은 37,161천CGT로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

선가 지수

단위 : P / 자료 : Clarkson Research / 선가지수 1988.01 = 100 / LNG선 174K CBM, 컨테이너선 15-16K TEU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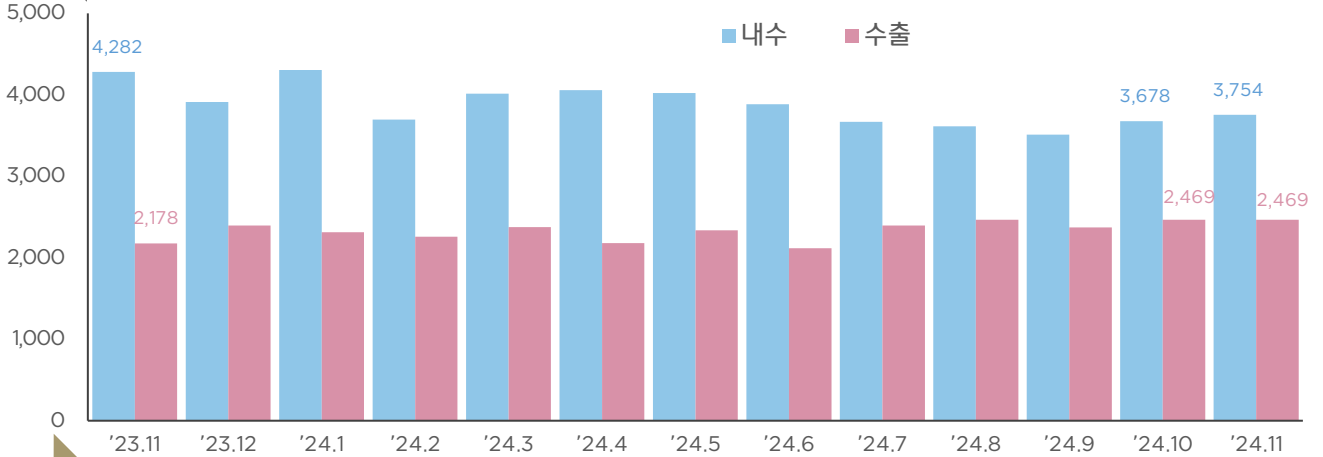
- ▶ 신조선가 // 선가는 189.0p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하는 등 연내 선가는 높은 수준을 지속
 - LNG선, 컨테이너선은 전월 대비 동일한 선가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선종의 선가는 고점을 기록 후 약보합 지속
 - 선가 및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영업실적 회복세는 연말까지 지속되는 상황

업황 부진한 가운데 전월 대비 내수 및 수출 소폭 상승

by 유상민 전임연구원 / sangminryu@kdb.co.kr

내수 및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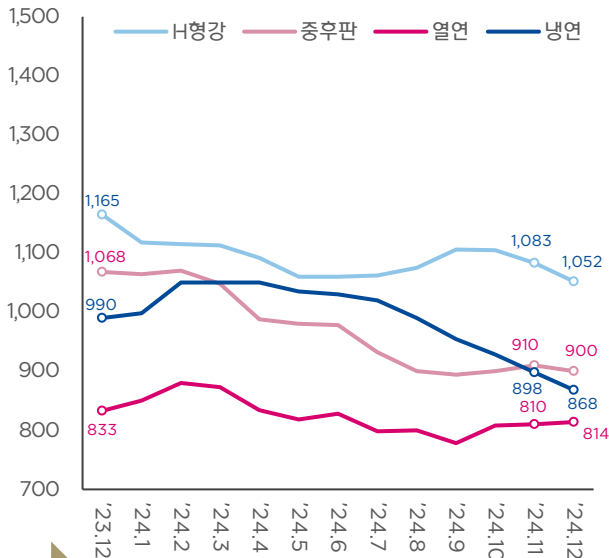
단위 : kton / 자료 : 한국철강협회



- ▶ 내수 // (전년 동월 대비) 건설 기성 부진, 자동차 생산 감소 등 수요 위축으로 12.5% 감소
(전월 대비) 건설기성 전월 대비 상승(+5.0%)등의 요인으로 2.1% 상승
 - 품목별 내수 증감(전년 동월 대비, 물량) : 열연강판(△4.4%), 냉연강판 (+2.7%), 중후판(△9.8%), H형강(△17.8%)
- ▶ 수출 // (전년 동월 대비) 중국과 인도向 수출 감소에도 유럽 및 동남아 수출은 지속 호조를 보이며 13.4% 상승
(전월 대비) 강관(+27.4%) 및 냉연강판(+4.7%) 수출은 증가, 중후판(△9.7%) 수출은 감소하며 보합
 - 국가별 수출 증감(전년 동월 대비, 물량) : EU(+78.9%), ASEAN (+20.0%), 중국(△13.7%), 인도(△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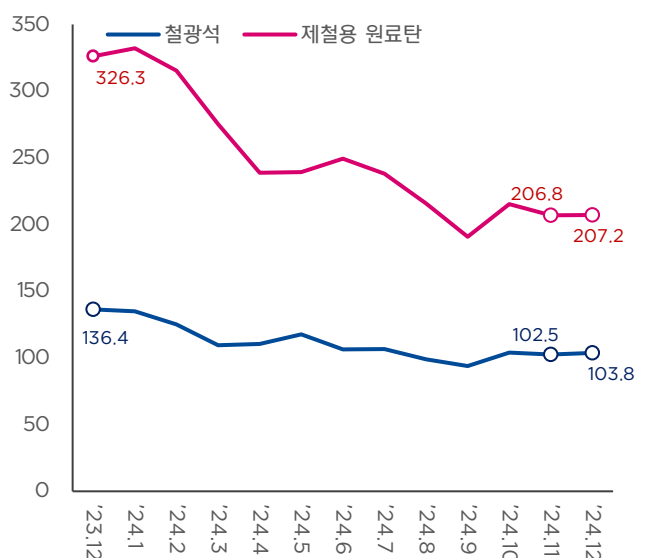
주요 품목 가격

단위 : ton당 1,000 KRW(중후판은 20mm) / 자료 : KoreaPDS / 국내 1차유통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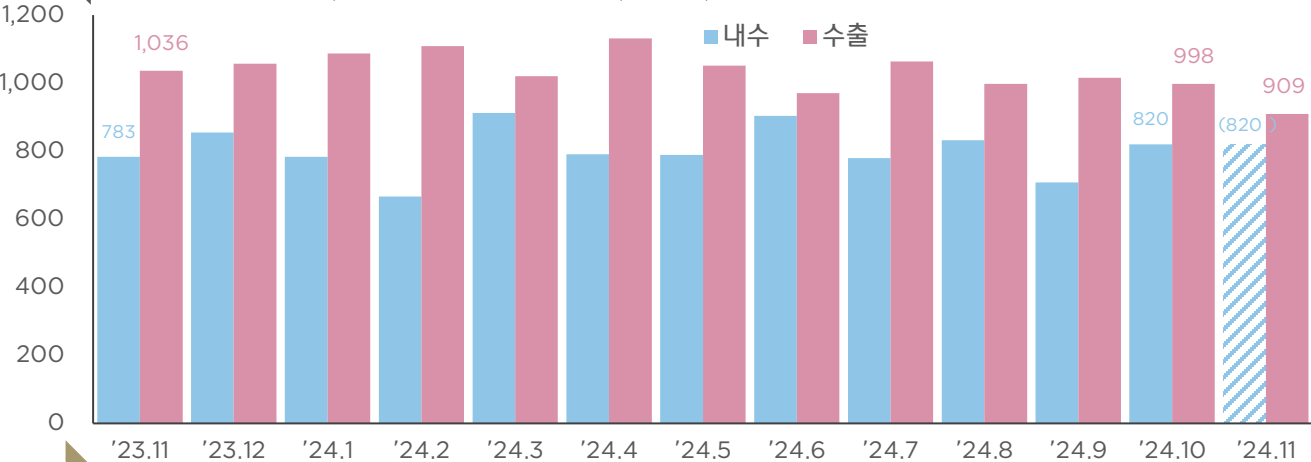


철광석 및 제철용 원료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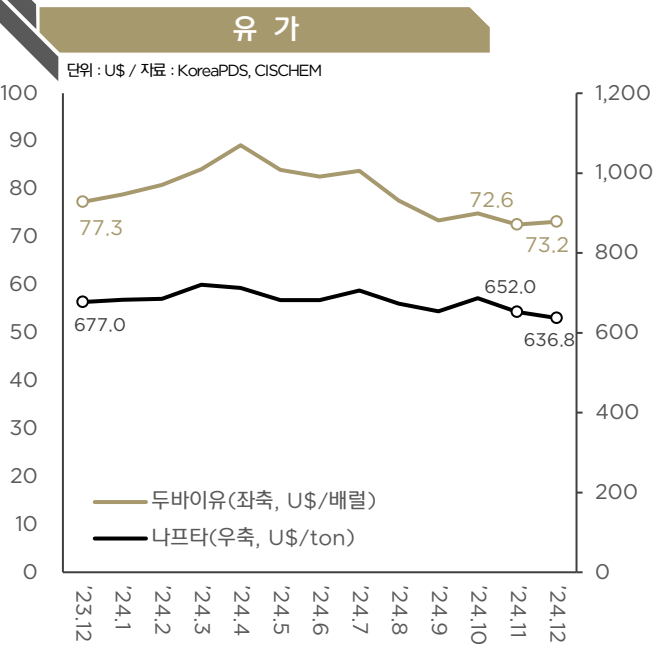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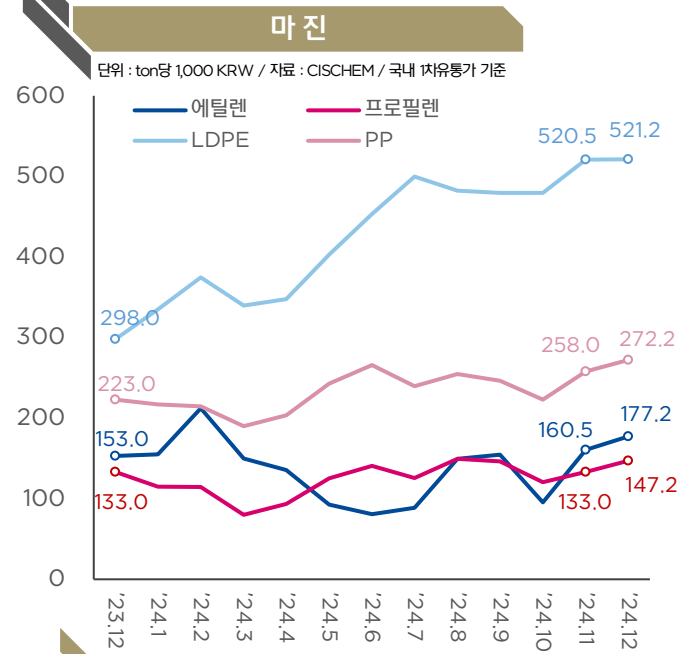
단위 : ton당 US\$ / 자료 : KoreaPDS / 철광석 중국 CFR, 원료탄 동호주 FOB 기준



- ▶ 가격 // 유통대리점의 연말 악성 재고 판매 등 요인으로 주요 품목의 전반적인 가격하락
 - 주요 품목 평균 가격('24.12월) : 열연 814천원/톤, 냉연 868천원/톤, 중후판 900천원/톤, H형강 1,052천원/톤
 - 주요 원재료 가격('24.12월, 전년 동월 대비) : 철광석 103.8달러/톤(△23.9%), 원료탄 207.2달러/톤(△36.5%)



- ▶ 수출 // 11월 마지막 주 기상악화 영향에 따른 일부 선적 차질로 전월대비 9.0%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12.3% 감소함
- 전월대비 제품별 수출 증감률 : 합성수지(△7.7%), 합성원료(△15.0%), 합성고무(△5.9%)
- ▶ 내수 // EVA(+146.7%), PS(+77.1%) 등 합성수지 제품 내수 확대로 전월대비 15.8%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함
- 전월대비 제품별 내수 증감률 : 합성수지(+34.7%), 합성원료(△7.6%), 합성고무(+8.7%)
- * 11월 내수 데이터는 협회 미제공



- ▶ 마진 //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협상 타결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국제유가 안정세(원료 나프타 가격 하락)로 제품별 마진 소폭 개선
- 전월대비 제품별 마진 증감률 : 에틸렌(+10.4%), 프로필렌(+10.7%), LDPE(+0.1%), PP(+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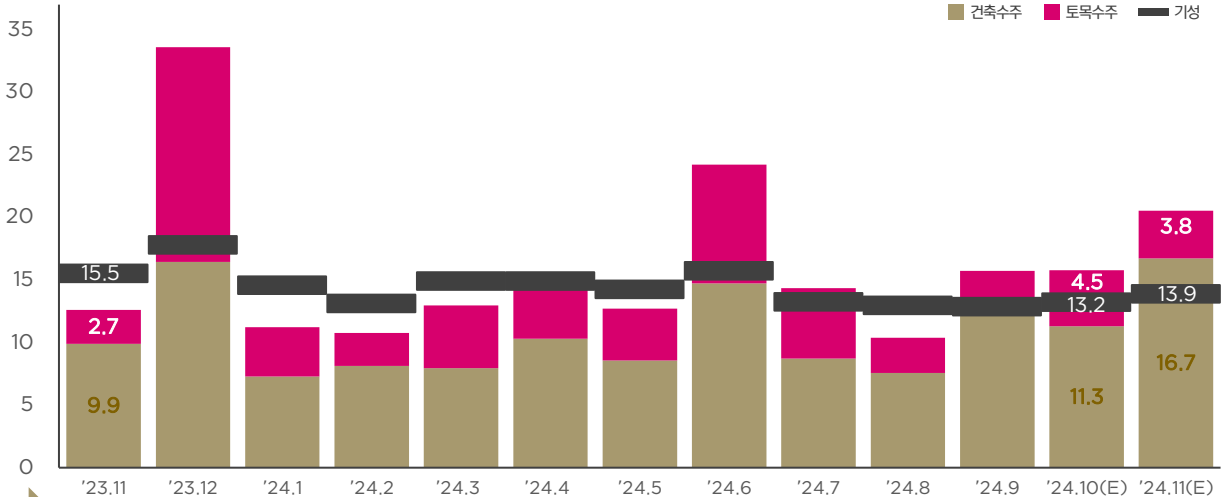


민간 및 공공부분의 주택 수주 증가

by 정영재 전임연구원 / Zero_ashes@kdb.co.kr

국내 수주 및 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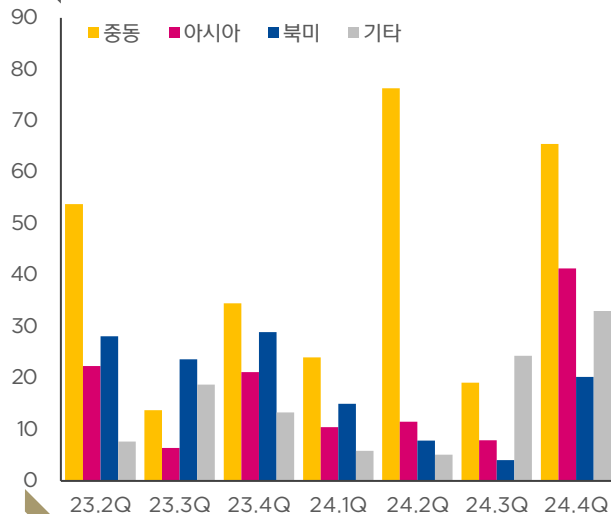
단위 : 조원 / 자료 : 통계청 / 경상가격 기준



- ▶ 국내수주 // '24.11월 건설수주액은 민간 및 공공부분의 주택건설 수주 증가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9% 증가(+7.9조)
 -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에 따라 건축공종(+5.3조, YoY)의 공공주택(+5.7조, YoY), 토목공종(+1.2조, YoY)의 발전 및 통신(+0.6조, YoY), 항만 및 공항(+0.3조, YoY)을 중심으로 207.6% 증가(+6.5조, YoY)
 - * 남양주왕숙 A-3BL, B-1BL 및 하남교산 A-2BL(066조)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015조), 경기 전력구공사(신가평-동서울1차)(013조) 등
 - 민간부문에서도 '23년 낮은 건설 수주에 대한 기저효과로 민간 주택(+1.0조, YoY), 공장 및 창고(+0.3조, YoY) 등 건축공종(+1.5조, YoY) 중심으로 17.1% 증가(+1.5조, YoY)
 - * 서울원 아이파크(16조),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동주택 2BL 신축공(10조), 북아현2 재정부 축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04조) 등

해외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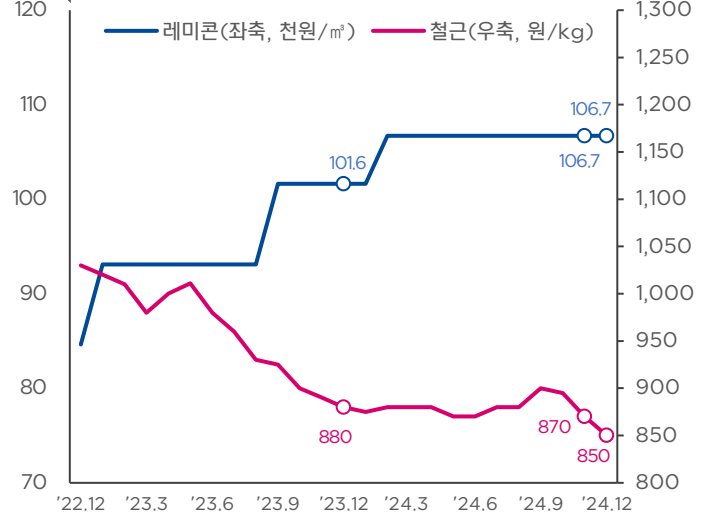
단위 : 억U\$ / 자료 : 해외건설협회



- ▶ 해외수주 // 삼성물산 카타르 Facility E 민자 발전 담수플랜트 프로젝트-EPC(28.4억U\$, '24.10) 및 삼성E&A 말련 피닉스 바이오리파이너리 프로젝트(9.54억U\$, '24.12)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대외비 공사 제외)
- ▶ 자재가격 // 12월 레미콘 가격은 전월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
 - 12월 철근 가격은 건설업 불황 계속에 따른 수요감소, 중국산 저가 철근 수입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하락

주요 건설 자재 가격

자료 : 한국물가협회 / 레미콘 서울지역 25mm-24Mpa-150mm, 철근 SD400 D10mm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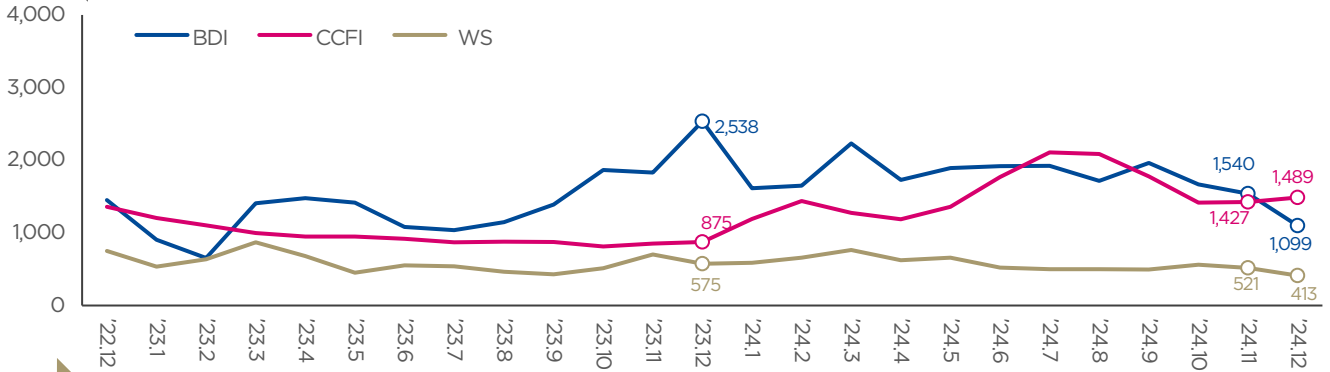
해상운송 Shipping Monthly

컨테이너선 전월 대비 운임 상승, 벌크선과 탱커선 운임 하락

by 김대진 연구위원 / moogi16@kdb.co.kr

주요 해운운임 지수

자료 : Clarkson / BDI 1985.14 = 100, CCFI 1998.11 = 100, WS 2023.11 = 100, 해당월 평균치



- ▶ 운임지수 // 벌크선은 겨울철 비수기로 인한 철광석 수요 감소 등 운임 하락, 탱커선은 중국 원유 수요 정체 지속되면서 운임 하락, 컨테이너선은 설 연휴 대비 조기 선적수요 증가로 운임 상승
- (벌크선) 겨울철 비수기로 인한 철광석 수요 감소 및 누적된 선박 공급압박으로 운임 하락
- (컨테이너선) 크리스마스 대비 연말 물동량 증가와 설 연휴 대비 조기 선적 수요 증가 등으로 운임 상승
- (탱커선) 중국의 내수시장 회복 지연에 따른 원유 수요 정체가 장기화되면서 운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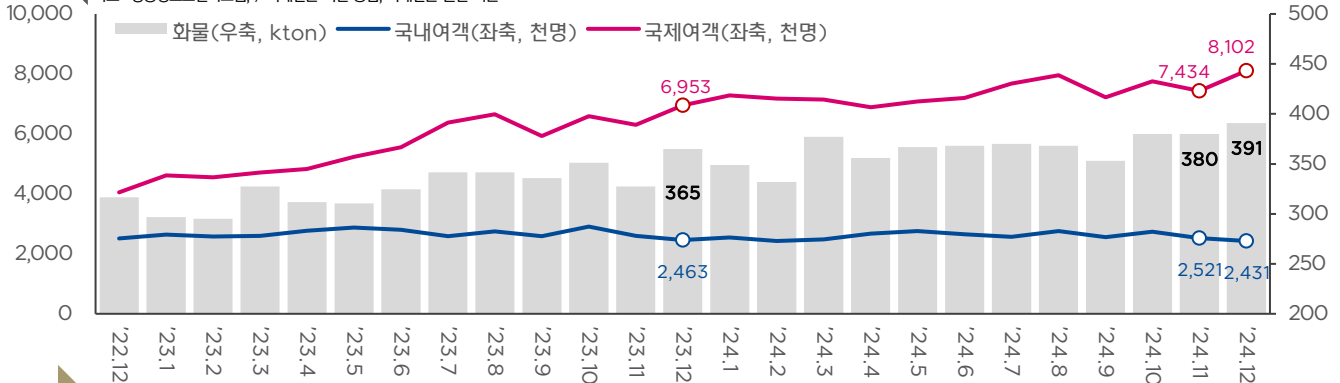
항공운송 Air Travel / Cargo Monthly

12월 여객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1천만명을 상회

by 민성희 선임연구위원 / shmin@kdb.co.kr

항공 운송량

자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 / 국제선은 착발 총합, 국내선은 출발 기준



- ▶ 12월은 연말이라는 계절적 특성상, 전월 대비 국제선 여객수가 증가하고 국내선 여객수가 감소하는 특징
- 지난해(24년)에는 수요가 있는 7,8,10,12월에 여객수가 1천만명을 돌파함
- ▶ 올해 설연휴기간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더욱 길어짐에 따라 국제선 여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금번 설연휴기간 동안 전체 항공편 운항횟수 및 공급 좌석수 증편 예정



월간산업동향

 KDB산업은행
미래산업연구소